EXCLUSIVE RIGHTS ANALYSIS · 생명보험협회 심의 대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 보장 분석

한화생명 보조기기지원금특약(연1회)(KTA1.1) 무배당 ·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 연동

분석 대상	한화생명 보조기기지원금특약(연1회)(KTA1.1) 무배당
신청 분야	위험률 · 장애 발생·장애인 등록 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 이용 신규 위험률
신청일	2026. 10. 15. (금융감독원 신고 완료)
심의 결과	심의 대기 (작성 기준일 현재)
작성 기준일	2026. 11. 11.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협회 공시 신청사항·개발과정요약서와 관련 법령·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내부 분석 자료다. 작성 기준일 현재 심의 전이며, 위험률 산출은 개념 수준으로만 기술한다.

EXECUTIVE SUMMARY

핵심 요약

본 특약은 보험기간 중 장애가 발생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이용한 해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공적 급여가 기준액의 90%(의료급여·차상위는 100%)를 지원한 뒤 남는 본인부담, 고가 제품 차액, 수리·교체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 **구조의 실체**: 위험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보험기간 중 장애 발생과 등록이라는 상태 전이가 일어나고, 그 뒤에는 보조기기 급여를 이용한 해마다 연 1회 지급되는 반복 급부가 이어진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뒤 복지용구 이용 시 지급하는 기존 담보를 장애인 제도로 옮겨 온 형태다.
- **혁신성**: 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을 엮어 "등록 장애인"이라는 집단을 처음으로 보장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대부분 65세 이상, 25개 품목) 대비 연령 제한이 없고 96개 품목으로 넓다는 회사 주장은 제도 비교로서 타당하다.
- **해석상 쟁점**: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중 장애 발생"이므로 가입 전에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 회사가 제시한 유용성(현재 장애인의 수리·교체 부담)과 실제 보장 대상(가입 후 새로 장애가 생긴 사람)이 어긋난다.
- **최대 리스크는 등록 유인**: 장애인 등록은 본인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노인성 난청처럼 등록 기준(양측 60dB 이상 등)에 걸쳐 있는 집단은 보험금이 생기면 등록 유인이 커진다. 보청기 급여 기준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크게 오른 전례처럼 공적 급여와 민간 보험금이 함께 커지면 판매업체의 진단·등록 권유 유인도 커지므로, 공급자 유인 관리가 핵심이다.
- **복제 난이도는 중간**: 복지용구 담보라는 검증된 형식이 있어 구조 모방은 쉽지만, 보조기기 급여 자료는 공단 맞춤형 자료 신청이 필요해 위험률 산출에 시간이 걸린다.

PROPOSAL SUMMARY

제안 사항 요약

원상품의 가치는 공적 보조기기 제도와 실제 생활비용 사이의 틈을 현금으로 메우는 데 있다. 제안은 공적 지원 채널 전체로 범위를 넓히는 방향과, 현금 대신 수리·렌탈 서비스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프레임	제안	핵심 내용
확장	① 보조기기 통합지원금	건강보험·의료급여·지자체 교부·장기요양 복지용구 등 공적 채널 이용을 하나로 묶음
확장	② 장애아동 성장기 교체 지원	어린이보험 탑재. 성장에 따른 보조기기 교체 시점마다 지급
집중	③ 고가 보조기기 차액 보장	전동휠체어 나·다군, 맞춤형 자세보조용구 등 기준액 초과분을 한도 내 실손 보전
집중	④ 유지·수리비 전용 담보	배터리·타이어·모터 등 수리 발생 시 연 1회, 수리 네트워크와 연계
전환	⑤ 수리·렌탈 현물 급부형	보험금 대신 제휴 수리센터 이용권·대여 서비스를 선택
전환	⑥ 장애 정도 변경 연동형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 "심한 장애"로 재판정될 때 가산 지급
재구성	⑦ 자립생활 보험	보조기기·주거 개조·운전 보조장치를 묶어 자립생활 브랜드로 포지셔닝
재구성	⑧ 시니어 청력·보행 케어	노인성 난청·보행 저하를 노후 삶의 질 관점으로 재정의

추진 순서 추천

1. **1단계(심의 대응기)**: 가입 전 등록 장애인의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모품·수리 급여의 지급사유 포함 여부를 약관에 정리한다.
2. **2단계(출시 후)**: ④ 수리비 전용 담보와 ⑤ 현물 급부형. 보조기기센터·수리업체 제휴를 먼저 확보해 등록 유인 리스크를 서비스로 통제한다.
3. **3단계(경험 축적 후)**: ①·②·③·⑥·⑦·⑧. 자사 지급 경험으로 품목별 이용 주기를 확인한 뒤 확장한다.

SECTION 01

상품구조 해부

1.1 급부 구조

항목	내용
급부	보조기기 지원금 (건강보험 보조기기형, 의료급여 보조기기형 각 연 1회)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장애」가 발생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또는 「의료급여 보조기기」를 이용한 경우
장애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조기기의 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 특례)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급여가 적용되고 실제 급여가 이루어진 보조기기
지급금액	개발과정요약서에 가입금액 예시가 없음. 연간 1회 정액으로 추정
개발 경과	2025.10 기획 → 2026.3 상품개발·리스크 검토 → 위험률·상품 외부검증 → 2026.7 금감원 신고 → 2026.10 판매 준비

1.2 트리거 분해

1. **상태 전이**: 보험기간 중 장애 발생 → 장애 진단 → 주민센터 등록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 등록 결정. 등록은 본인 신청 행위이므로 "장애 상태"와 "등록"이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 있다.
2. **반복 트리거**: 등록 이후 해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또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 실적이 있으면 지급한다. 두 급여는 가입자 자격에 따라 하나만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연 1회다.
3. **급여 실적 조건**: 처방 → 사전승인(일부 품목) → 구입 → 공단 지급까지 마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지급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이용 주기와 지급 빈도

공적 급여는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를 **내구연한 안에 1인당 1회** 인정한다. 지팡이 2년, 수동휠체어 5년,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6년, 보청기 5년, 욕창예방 방석·매트리스 3년이다. 한 가지 기기만 쓰는 사람이라면 수년에 한 번 지급사유가 생긴다. 반대로 여러 기기를 쓰거나 전지·소모품처럼 짧은 주기의 급여 품목을 쓰는 사람은 거의 매년 지급사유가 생긴다. 회사가 "연간 1회"를 강조하지만 **실제 지급 빈도는 사용 품목 구성에 따라 크게 갈린다.**

SECTION 02

국내외 유사 상품 조사

2.1 국내 유사 상품

구분	대표 담보	주요 보장	본 특약과의 차이
지급방식 유사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금 (생·손보 다수)	장기요양(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후 복지용구 이용 시 월 1회 정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반, 대부분 65세 이상. 본 특약은 장애인복지법 기반, 연령 제한 없음
보장 유사	장해 진단비·장해 연금 (상해·질병 후유장해)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의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	보험사 장해 기준. 본 특약은 공적 장애인 등록과 공적 급여 실적을 그대로 사용
보장 유사	장기요양 재가급여·시설급여 지원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정액	돌봄 서비스 중심. 기기 보장은 아님
보장 유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	희귀·난치 장애인 학습용 보조기기 무상 지원	보험상품이 아닌 공익사업

검색 범위에서 등록 장애인의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 이용을 지급사유로 삼은 보험 담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급 구조는 복지용구 담보와 같으므로 **독창성의 핵심은 "공적 제도의 선택"**에 있다.

2.2 일본 유사 상품

- **시장 특이점**: 일본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른 「보장구비 지급제도」로 의지·보조기·휠체어·보청기 등을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원칙 1할에 소득별 월 상한이 있다. 고령자는 개호보험의 복지용구 대여·구입 제도를 이용한다.
- **유사 상품**: 일본 민영보험의 장애 관련 급부는 신체장애자수첩 등급 또는 공적연금 장애등급을 트리거로 하는 일시금·연금형이 중심이다. 확인한 범위에서 보장구비 지급 실적 자체를 트리거로 쓰는 상품은 찾지 못했다.
- **시사점**: 일본에서도 장애 관련 민영보험은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기기 이용"은 공적 제도에 맡긴다. 기기 이용 실적을 트리거로 쓰면 이용률 변동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지게 되므로, 일본식 등급 연동 일시금(제안 ⑥)과 결합해 위험을 분산하는 구성이 바람직하다.

SECTION 03

법률적 해석

3.1 장애인 등록 절차와 기준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의 15개 유형을 정한다.
- **장애 정도**: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한다.
- **등록 절차**: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서류 심사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일정 기간 뒤 재판정을 받는 유형도 있다.
- **보험상 의미**: 등록은 공적 심사를 거치므로 객관성이 높다. 다만 **언제 등록할지는 본인이 정하므로** 보험금이 등록 시점과 등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2 보조기기 급여 절차

단계	내용
처방	해당 과목 전문의가 장애 유형별 품목 기준에 맞춰 처방전 발급
승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자세보조용구 등은 공단 사전승인 필요
구입·검수	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하고, 일부 품목은 검수 확인
급여 지급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가 중 최저 금액의 90%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재급여	같은 유형은 내구연한 경과 후 재지급. 내구연한 안 수리·교체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

예를 들어 가군 전동휠체어 기준액은 236만원이므로 236만원 제품을 사면 공단이 212만 4천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23만 6천원을 낸다. 300만원 제품을 고르면 기준액 초과분까지 더해 본인부담이 87만 6천원으로 커진다. 회사가 인용한 연구에서도 전동휠체어 수리 경험자의 상당수가 배터리·소모품 교체로 반복 비용을 냈다.

3.3 보청기 경로의 특수성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는 기준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제품비 111만원 + 적합 관리비 20만원)으로 크게 오른 뒤 현재 5년에 1회 지급된다. 이비인후과 학회는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을 60대 12%, 70대 26%, 80대 이상 53%로 제시한다. 이 집단 가운데 등록 기준에 근접한 사람이 많으므로, **급여와 보험금의 합계가 등록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특약은 청각장애 경로의 신규 등록 추이와 청구 패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등록 추이가 급여 수준 변화에 얼마나 반응했는지는 공식 통계로 확인한 뒤 위험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제도 대비 보장 범위

구분	장애인 보조기기 (본 특약 연동)	장기요양 복지용구 (기존 담보 연동)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령	제한 없음	대부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지원 방식·금액	구입, 품목별 기준액의 90%	구입 + 대여, 연간 160만원 한도
품목	96개 (회사 자료)	25개

SECTION 04

위험률 산출 개념

$급부_t = q_{장애발생등록,x} \rightarrow u_{보조기기급여이용,t} \times 가입금액$

$q_{장애발생등록,x}$: x세가 보험기간 중 장애가 생겨 장애인으로 등록될 확률 (상태 전이)

$u_{보조기기급여이용,t}$: 등록 후 t년차에 보조기기 급여를 이용할 확률 (연간 베르누이)

- **위험 형태**: 건강 → 등록 장애의 상태 전이와, 등록 상태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용 확률이 결합된 다중상태형이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담보와 같은 골격이다.
- **데이터원**: 장애인 등록 통계(국가 공식통계, ②계층)와 공단의 보조기기 급여 자료(③계층)가 필요하다. 회사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수급자 분석을 자체 수행했다고 밝혔다.
- **불확실성 ①**: 등록률이 보험금 유무에 반응한다. 일반 인구 통계로 만든 q는 가입자 집단의 등록 행동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 **불확실성 ②**: u는 품목 구성과 내구연한 주기에 따라 달라지고, 급여 품목 확대(2026년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가 이어지면 상승한다.

SECTION 05

리스크 진단

축	리스크	대응 방안
역선택	진행성 난청, 퇴행성 관절질환, 신경계 질환 등 장애 기준에 근접한 사람의 가입	청력·보행·시력 관련 고지 강화, 가입 후 2년 내 등록 시 감액
모럴해저드	보험금 목적의 등록 시점 조정과 경증 등록 증가. 저가 품목 반복 구입	등록 후 최초 지급 대기기간, 지급 대상 품목군 한정, 소모품 제외 검토
공급자 유인	보조기기 판매업체의 진단·등록 알선, 고가 제품 권유	청구 시 공단 지급 내역 확인, 업체별 청구 집중도 모니터링, 제휴 업체 우대
재보험	신규 위험이고 장기 반복 지급이라 재보험사의 경험 부족	등록 후 지급 횟수 상한 또는 갱신형, 손해율 연동 재보험
규제	보조기기 기준액 인상·품목 확대, 등록 기준 개편이 곧바로 빈도 상승으로 이어짐	급여 기준 변경 시 요율 조정 조항, 갱신 주기 단축
데이터	가입자 집단의 등록 행동과 이용 주기에 대한 보험권 경험 부재	보험개발원 협업, 초기 판매한도 설정, 3년 경험 후 재산출

종합 판단: 지급사유 두 단계가 모두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사기 판별은 쉽다. 그러나 **공적 기록 자체가 행동에 반응한다**는 점이 이 상품의 본질적인 리스크다. 급여 기준 변화가 등록 행동에 미친 영향을 공식 통계로 확인해 위험률과 판매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SECTION 06

경쟁사 대응 시나리오

장벽	수준	판단 근거
데이터 장벽	중간	등록 통계는 공개되어 있으나 보조기기 급여 이용 자료는 공단 맞춤형 자료 신청이 필요
제휴 장벽	없음	현금 급부라 제휴가 필요 없음. 현물 전환 시 제휴 장벽 발생
시스템 장벽	낮음	복지용구 담보의 청구 체계를 재사용 가능

- **카피 경로**: 복지용구 담보를 판매 중인 회사는 근거 법령과 정의만 바꿔 빠르게 따라올 수 있다. 손보사는 협정 범위 밖이라 배타기간 중에도 개발이 가능하다.
- **대체 담보**: "장애인 등록 진단비(일시금)"는 이용 위험 없이 등록만으로 지급하므로 더 단순한 대체재가 된다.
- **차단 전략**: 수리·렌탈 서비스 네트워크(제안 ④·⑤)를 먼저 구축하면 현금 담보로는 따라오기 어려운 제휴 장벽이 생긴다.

SECTION 07

상품개선 제안

원상품 가치 해체

- **핵심 기능**: 공적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해마다 남는 본인부담과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한다.
- **고객 Pain Point**: 공적 지원은 기준액 90%까지이고 내구연한 안 수리·교체는 지원되지 않아, 실제 사용 과정의 비용이 계속 남는다.
- **제공 가치**: 장애 이후에도 필요한 기기를 제때 바꾸고 고쳐 쓰며 자립 생활을 이어 가게 돕는다.

① 확장 · EXPAND

① 보조기기 통합지원금

건강보험·의료급여 외에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장기요양 복지용구까지 공적 채널을 하나로 묶는다.

1. **담보 정의**: 4개 공적 채널 중 하나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2. **보장 방법**: 연 1회 정액, 채널 중복 시에도 1회
3. **보장금액 제안**: 연 30만원
4. **대상 고객**: 장애·노화가 겹치는 50대 이상 전반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분절된 공적 보조기기 제도를 하나의 위험으로 통합한 데 있고, 진보성은 장애인·노인 구분 없이 기기 필요 상태를 보장한 데 있다. 유용성은 제도별 자격을 몰라도 보장받는 단순함에 있다.
6. **위험요소**: 채널 간 이중 수혜는 연 1회로 막고, 지자체 교부 자료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중 (채널별 자료 분산) · 구조 ◯

② 장애아동 성장기 교체 지원

2026년 아동용 전동휠체어·장애인용 유모차·몸통지지 보행차가 급여화되었다. 아동은 성장 때문에 내구연한보다 먼저 기기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다.

1. **담보 정의**: 18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의 보조기기 급여 또는 성장에 따른 교체
2. **보장 방법**: 교체 시마다 정액, 연 1회
3. **보장금액 제안**: 회당 50만원
4. **대상 고객**: 어린이보험 가입 부모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성장기 교체 수요를 독립 위험으로 정의한 데 있고, 진보성은 성인 중심 내구연한 제도의 공백을 메운 데 있다. 유용성은 장애아 가족의 반복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출생 전·영유아 가입 시 선천성 장애의 역선택은 태아 가입 고지와 선천질환 면책 조건으로 관리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중 · 구조 ◯

② 집중 · FOCUS

③ 고가 보조기기 차액 보장

전동휠체어 나·다군, 맞춤형 자세보조용구처럼 기준액을 크게 넘는 제품의 차액을 한도 안에서 실손 보전한다.

1. **담보 정의**: 보조기기 급여 이용 시 실구입가에서 공단 지급액을 뺀 본인부담액
2. **보장 방법**: 실손형, 연간 한도
3. **보장금액 제안**: 연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 10%
4. **대상 고객**: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가족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공적 급여의 기준액 초과분을 보험으로 처음 보전한 데 있고, 진보성은 정액 담보의 과소·과다 보장을 실손형으로 맞춘 데 있다. 유용성은 고성능 기기 선택권을 넓히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고가 제품 권유는 공단 고시금액 대비 상한과 등록 업소 한정으로 통제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중 (실구입가 자료 부족) · 구조 ◯

④ 유지·수리비 전용 담보

회사가 유용성 근거로 든 배터리·타이어·조이스틱·모터 수리비를 직접 보장한다.

1. **담보 정의**: 급여로 받은 보조기기의 수리·소모품 교체 비용 발생
2. **보장 방법**: 연 1회 정액 또는 제휴 수리센터 현물
3. **보장금액 제안**: 연 20만원
4. **대상 고객**: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사용자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공적 제도가 다루지 않는 내구연한 안 수리를 독립 위험으로 정의한 데 있고, 진보성은 기기 수명 전체를 보장한 데 있다. 유용성은 고장 방치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줄이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수리 영수증 위조는 제휴센터 현물 우선으로 막고, 고의 파손은 면책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하 (수리비 통계 부족, 제휴처 자료로 보완) · 구조 ◯

③ 전환 · TRANSFORM

⑤ 수리·렌탈 현물 급부형

현금 대신 중앙·지역 보조기기센터나 민간 수리업체와 제휴한 수리·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담보 정의**: 지급사유 발생 시 현금 또는 서비스 이용권 선택
2. **보장 방법**: 수리 출장 서비스, 수리 기간 대체 기기 대여
3. **보장금액 제안**: 현금의 120% 가치 서비스로 선택 유인 제공
4. **대상 고객**: 이동 보조기기 의존도가 높은 고객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보조기기 보장을 서비스 네트워크로 바꾼 데 있고, 진보성은 현금 급부의 목적 외 사용을 줄인 데 있다. 유용성은 고장 즉시 대체 기기를 받는 실질적 편익에 있다.
6. **위험요소**: 제휴처 품질과 지역 편차는 복수 제휴와 서비스 수준 협약으로 관리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중 · 구조 ◯ (현물로 모럴해저드 감소)

⑥ 장애 정도 변경 연동형

이용 실적 대신 장애 상태 변화를 트리거로 추가해 이용률 변동 위험을 분산한다.

1. **담보 정의**: 등록 시 일시금, 이후 "심한 장애"로 재판정되면 가산
2. **보장 방법**: 등록 시 1회, 정도 변경 시 1회
3. **보장금액 제안**: 등록 200만원, 정도 변경 300만원
4. **대상 고객**: 본 특약과 함께 가입하는 30~50대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장애 정도 2단계 체계를 급부 단계로 쓴 데 있고, 진보성은 이용형과 상태형을 결합한 데 있다. 유용성은 장애 초기의 목돈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재판정 신청 유인은 지급 후 대기기간과 의학적 판정 기록 확인으로 관리한다.

게이트: 신규성 △ (장해 진단비 존재, 공적 정도 연동으로 차별화) · 데이터 상 · 구조 ◯

④ 재구성 · REFRAME

⑦ 자립생활 보험

WHO가 보조기기 범주에 넣는 주거 개조와 운전 보조장치까지 묶어 "장애 이후 자립"을 브랜드로 삼는다.

1. **담보 정의**: 보조기기 지원금 + 주거 개조비 + 차량 운전 보조장치 설치비
2. **보장 방법**: 항목별 최초 1회 또는 연 1회
3. **보장금액 제안**: 주거 개조 300만원, 운전 보조장치 200만원
4. **대상 고객**: 사고·뇌졸중 등 후천성 장애 위험을 걱정하는 30~50대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기기·주거·이동을 자립 생활 관점으로 묶은 데 있고, 진보성은 의료비 중심 보장을 생활 재설계 비용으로 넓힌 데 있다. 유용성은 장애 직후 생활 복귀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개조비 과다 청구는 견적 사전 심사와 한도로 관리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하 (개조비 자료 부족, 탐색 단계) · 구조 ◯

⑧ 시니어 청력·보행 케어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6.9%다. 노인성 난청과 보행 저하를 장애가 아닌 노후 삶의 질 문제로 재정의해 시니어 세그먼트에 판매한다.

1. **담보 정의**: 청각장애 등록 후 보청기 급여, 보행 관련 보조기기 급여
2. **보장 방법**: 품목군별 연 1회
3. **보장금액 제안**: 회당 30만원 + 보청기 적합 관리 서비스
4. **대상 고객**: 60~75세, 부모 보장을 준비하는 자녀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고령 장애를 삶의 질 메시지로 재포장한 데 있고, 진보성은 기기 지급과 사후 적합 관리를 결합한 데 있다. 유용성은 보청기를 사 놓고 쓰지 않는 문제를 줄이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청각장애 등록 알선 리스크가 가장 큰 경로이므로 청력검사 기관 요건과 가입 후 2년 감액을 둔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상 · 구조 △ (등록 유인 관리 필수)

SECTION 08

부록·참고자료

공시·회사 자료

1. 생명보험협회, 한화생명 배타적사용권 신청사항(2026.10.15) 및 개발과정요약서

법령·제도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3. 의료급여법 제13조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안내(지급기준금액의 90%, 차상위·의료급여 100%)
6.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2026, 46개 품목·연 200만원 한도)

보도·연구

1. 데일리메디, 「청각장애만큼 관리 절실한 노인성 난청」 이비인후과학회 간담회(2023.4.25)
2. 헤럴드경제, 아동용 전동휠체어·장애인용 유모차·몸통지지 보행차 급여화(2026.3)
3. 국립재활원, 보조테크놀로지 글로벌보고서 한국어판(2023)
4. 수리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른 전동휠체어 적용의 고려사항 연구,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2021)

한국 데이터 인프라

1. ②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2.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보조기기 급여 이용 자료), 의료급여 자료